

호남 '인적 네트워크' 없어지나

靑 수석 인사... 광주·전남·북 출신 1명도 포함 안돼

각료 인선에도 발탁 불투명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호남 인맥 배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이 영남 편향으로 이뤄진 데 이어 10일 단행된 청와대 수석 비서관 인선에서도 광주·전남지역 출신이 단 한 명도 발탁되지 않았다. 청와대 수석 비서관에 호남출신 인사가 배제된 것은 지난 1980년 제5공화국 첫 청와대 수석비서관 인사 이후 28년만이다.

조만간 있을 각료 인선에서도 광주·전남 출신 인사로 2~3명만이 거론되고 있을 뿐이며, 실제 발탁 가능성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따라서 '영남 편향·호남 소외' 인사로 중앙 정부와 호남과의 소통 채널이 막혀

'지역발전 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청와대 수석비서관 내정을 보면 지나치게 특정 지역과 특정 대학 학맥에 편중돼 있어, 사회통합을 위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하기 어렵게 됐다.

출생지별로는 영남권(이주호, 박재완, 이종찬, 박승준)과 서울(김병국, 김중수, 박미석, 이동관)이 각각 4명으로, 호남, 충청, 강원, 제주도 출신은 단 1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경북 상주 출신인 유우익 대통령 비서실장 지명자까지 포함하면 비서실장과 수석 9명 가운데 절반이 영남 출신들로서 지역안배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또 출신대학별로는 서울대가 4명

(김중수, 이주호, 박재완, 이동관)으로 가장 많으며 고려대 2명(이종찬, 박승준), 숙명여대 1명(박미석), 하버드대 1명(김병국) 등이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에서도 구성된 37명 가운데 광주·전남 출신은 비서실 보좌역 정두언 의원 등 3명에 그쳤으나, 영남 출신은 17명이나 배제됐다.

조만간 있을 각료 임명을 앞두고도 '호남 소외'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각료 후보군 중 영남출신 인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광주·전남 출신은 3~4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유력하게 거명되는 광주·전남지역 인사는 김중빈 전 검찰총장과 이만의 전 환경부 차관 정도다. 김중수 국방부장관과 전용철 감사원장의 유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가능성은 반반이다.

이들 중 일부가 기용된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역 안배용'에 그칠 가능성이 커 호남과 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하기 어렵고, 지역현안사업의 차질도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새 정부와 소통할 '호남 인맥'이 없다 보니 광주시와 전남도에서는 이명박 당선인의 지역 공약사업 추진과 관련된 정보 파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 정·관계 인사들은 "타지역에 비해 경제적 낙후가 심한 광주·전남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에 호남 인사들이 적절하게 포진해야 하는데 걱정"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지역갈등을 극복하고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는 내각 구성에 있어 지역 안배를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10일 전통 민속놀이 체험행사가 열린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연 만들기 체험하고 있다.

연 만들기 체험

여수세계박람회 탄력

새정부 국정과제 확정

2012여수세계박람회가 새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제 3차 국정과제보고회의를 열고 5대 국정지표와 21대 전략, 192개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특히 인수위는 5대 국정지표 가운데 '삼기는 정부' 항목중 일반과제로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추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여타 국제행사들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여수를 세차례 방문, 세계박람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직접 밝힌 바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국내에서 열리는 몇가지 대규모 국제행사를 제쳐두고 새 정부가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추진'을 국정지표로 명시한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 "이달중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국회 통과 등을 통해 박람회 개최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해기기자 choi@kwangju.co.kr /최경호기자 choice@

광주·전남 노인 '실버취업' 급증

고령화 추세로 인해 65세가 넘어서도 일을 하는 인구가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최근 10년간 노년층의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이 80%에 육박할 만큼 '실버 취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광주·전남의 65세 이상 취업자는 18만6천명에 달한다.

이는 10년 전인 1997년(13만5천명)에 비해 37.8%(5만1천명)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광주는 지난해 말 현재 고령 취업자가 2만5천명에 달하면서 10년새 78.6%(1만1천명)나 늘었다.

취업자 18만6천명

이처럼 노년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난 것은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고령인구가 매년 급증하고 있고 노년층의 사회·경제적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주·전남의 경우 지난해 말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각각 11만6천명, 32만7천명에 달한다. 이는 10년새 각각 75.8%(5만명), 34.0%(8만3천명) 늘어난 것으로, 지역 내 고령화 현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작년 말 현재 전국의 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152만2천명으로, 10년 전 보다 75.1%(65만3천명) 증가했다.

최경호기자 choice@

정무 박재완·경제 김종수

'통일부 존치' 합의

이명박 정부 청와대 수석 등 8명 발표

신당·한나라 일괄타결 실패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박재완(53) 한나라당 의원을 정무수석에, 김종수(60) 한림대 총장을 경제수석에 각각 내정하는 등 새 정부 대통령실 수석 인선을 마무리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오전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석 내정자 명단을 공식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외교안보수석에는 김병국(48) 고려대 교수, 사회정책수석에는 박미석(49·여) 숙명여대 교수, 교육과학문화수석에는 이주호(47) 의원, 민정수석에는 이종찬(61) 전 서울교감장, 국정기획수석에는 박승준(48) 고려대 교수가 각각 내정됐다. 또 홍보수석 기능까지 흡수한 대변인에는 이동

관(50) 현 인수위 대변인이 발탁됐다.

이 당선인은 인선 기준과 관련, "여러가지 기준이 있으나 저와 함께 협력해 일할 능력이 있고, 국가관이 투철하며, 그리고 내각에 비해 활기에 찬 비교적 젊은 층을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수석비서관 인선 배경에 대해 "제 입장에서는 그(베스트 오브 베스트) 기준에 맞다고 생각해서 함께 일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이 보기에 조금 부족할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모르겠으나, 저와 함께 일한다면 '두인 데어 베스트(Doing their Best, 최선을 다함)'는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0일 '6인 협상'을 재가동,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협상을 재시도했으나 일괄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관련기사 4면〉

이에 따라 양당과 인수위는 11일 재협상을 갖기로 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당초 목표한 12일 본회의의 처리 전망은 불투명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양당과 대통령직 인수위는 이날 오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3차 '6인 협상'을 열어 여성가족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방송통신위의 존폐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조율했으나 일괄타결에 이르지 못했다고 신당 최재성 원내 대변인과 인수위 정부조직

TF 팀장인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협상에는 신당 김효석 원내대표와 김진표 정책위의장, 유인태 국회 행정자치위원장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이한구 정책위의장 및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11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4차 협상을 열어 정부 기능 재편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하기로 했으며, 이에 앞서 신당과 한나라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갖고 각 당의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앞서 양당 협상단은 지난 8일 2차 협상에서 통일부를 존치시키고 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이 아닌 독립기구로 두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한 바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목포중앙고등학교 교장 공개모집 공고

목포중앙고등학교 교장 공개모집 요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모 목적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가 원하는 학교장을 공모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최첨단산업사회를 주도할 정보 및 **영상미디어**, 그리고 지역특성에 맞는 **조선디자인** 분야에서 날다른 소질과 잠재된 능력을 조기에 개발할 수 있도록 인재육성을 통하여 **특성화고교**로의 새로운 도약을 하고자 한다.

2. 공모 대상학교
목포중앙고등학교 (전남 목포시 대양동 208 번지)

3. 공모 임용기간
2008. 3. 1. ~ 2012. 2. 29.(4년)

4. 공모요건 (응모 자격)
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별표1)에 의한 교장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장 경력 2년 이상이 있는 자
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추진력이 강하고 학생, 학부모, 지역민이 만족하는 학교를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자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가 없는 자

5. 지원자 제출서류
○ 교장공모 지원서1부(파일포함)
○ 교장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필)
○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 경력 및 주요 활동 실적(파일포함)
○ 자기소개서 1부(파일포함)
○ 학교경영계획서 1부(파일포함)
○ 각종 수상실적 증빙서 각 1부
*소정양식은 목포중앙고 및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참조

6. 응시서류제출(공모응시원서제출)
가. 접수기간
2008.02.05(14:00)-2008.02.15(17:00)까지
나. 제출방법
○ 접수장소 : 목포중앙고등학교교정실(061-281-1477)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 또는 등기로 우송(우편접수는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7. 심사 방법 및 내용

심사 회수별	주 관	심사내용	비고
1차 심사	심사위원회	서류심사 (경력, 학력 외)	2008. 02. 15 2008. 02. 17

2차 심사 **심사위원회** **면접심사 (학교경영계획발표 및 현안문제 문답 외)** **2008. 02. 18 10:00 (면접순서는 서류접수 순서임)**

임용추천 **심사위원회** **복수선발하여 법인이사장에게 임용추천**

*면접시간 및 장소는 서류심사후 개별통지 예정

8. 합격자 발표
2008.02.26(목) 16:00 (개별통보)

9. 기타사항
• 최종합격 이후라도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채용신체검사에서 및 신원조사에 부적합한 판정이 나올 경우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 061-281-1477(목포중앙고등학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2월 11일

목포중앙고등학교
법인이사장 김호남

